



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계획 변경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그리스 정부가 당초 합의된 적자 감축 계획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그리스 위기설이 다시 대두됨.

- 그리스 정부는 2011년 재정적자 목표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대폭 수정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함.
- 그리스 내각은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침체 때문에 2011년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EU 및 IMF와 합의한 7.6%(167억 달러)보다 높은 8.5%(187억 유로)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.
- 그리스 정부는 공공부문 인력감축 등으로 2012년까지 모두 66억 유로를 추가로 긴축하여 2012년에는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.8%(147억 유로)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함.

■ 금번 재정적자 감축 계획 변경으로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급의 결정이 연기됨.

-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10월 4일 월레회의를 마친 후 EU, 유럽중앙은행 및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실사가 완료되는 11월 중순에 그리스 구제금융 6차분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.
- 또한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그리스가 11월까지 구제금융 6차분을 지급받으면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.
- 구제금융 지급 결정 연기의 배경 중 하나로 그리스 은행들의 손실이 당초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됨.
 - 민간 채권단, 은행, 투자펀드 등은 2011년 7월 합의된 그리스 국채 21% 상각안보다 더 큰 손실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유로존의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2011~2012년을 통합하여 그리스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도함.

- 일단 긴급한 구제 금융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관측됨.
-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없이 시간벌기일 뿐이라는 분석을 제기함.

(Financial Times 10/4, Wall Street Journal 10/3)